

제7대 신재생에너지학회장에 이영호 해양대교수 취임

주요업 기자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이영호)가 11일 서울 역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영호 한국해양대학교수를 제7대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호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11일 제7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호 회장은 서울 역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학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임기 중 첫 번째 과제로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중심이 돼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술단체 중연합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중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날’을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우수 실적을 쌓은 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산업체 기술상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학연 구심체를 우리 학회가 주도적으로 결성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며 “국내외 정기 학술대회를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기술 공유와 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두 번째 실천과제로 이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는 국가적인 차원의 통합된 관리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라며 “각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국가적 또는 지역별 이점과 문제점을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본부’ 또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수단이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주민, 사업주체가 공유, 상생,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오는 11월 광주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국 광저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재생에너지 포럼 국제학술대회 행사(AFOR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진수 전임 회장, 한경섭 전임 회장, 윤진영 남부발전 차장, 송윤호 지구환경연구본부 본부장, 고승훈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기술센터장, 윤세왕 한국태양광발전학회 고문,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남기용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